



완주소방서, 재난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지난 5일 오후 2시 봉동읍 하월길 21 소재 봉동중앙교회에서 '2025년 하반기 첫 재난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충남 금산군 남동쪽 3km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봉동중앙교회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지진·건물붕괴·화재·다수사상자 구급 대응을 모두 포함한 종합훈련으로, 하반기 전북소방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대규모 훈련이다.

훈련에는 총 197명의 인원과 39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유관기관 간 협업과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했다. 완주소방서를 비롯해 전북119특수대응단,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제958부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완주군보건소와 원광대학교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함께해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 능력을 점검했다.

이주상 완주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하반기 전북에서의 첫 종합대응훈련이자, 교회라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총 2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힘을 모아 실제 재난과 같은 상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곽노태 기자

김제 검산동지사협·아이들과 제과제빵 클래스 진행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기심)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관내 카페에서 지역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관장 정훈)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각 회기마다 아이들과 위원들이 함께 직접 재료를 다루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소통과 나눔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만큼 참여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울 수 있도록 했으며, 만들어진 빵과 쿠키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새로보미 축제장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지난 5일 김제시민운동장 '새로보미 축제현장'에서 기초질서 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초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제경찰서는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불법전단지 투기, 무전취식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기본생활 수칙들을 집중 홍보했다. 축제와 함께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많은 시민들이 축제 참여와 더불어 기초질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메시지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존중과 공감의 대화로 가족 관계 회복해요'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읍북부노인복지관서 시니어 소통 교육 실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경희)은 지난 4일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슬기로운 가정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교육청 회복조정지원단 속속 양복심 조정위원회가 강사로 나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세대 간 소통 능력 향상과 가족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이미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갈등은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꾀오르고 있다.

교육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변화 이해 △부부 및 자녀 세대와의 갈등 원인 분석 △미디어 속 노인 혐오 사례와 대응법 △회복적 대화법 실습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족 내 긍정적 소통과 존중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록 구성됐다.

특히,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속 인물 '관식이'와 '애순이'의 시각을 빌려 세대 간 오해와 편견을 풀어보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박모(72)씨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내용과 연결될 줄은 몰랐다"며 "평소 손주와 대화하는 것이 잘 안 돼 답답했는데, 오늘 배운 대화법으로 한 번 시도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bwf.or.kr)나 전화(063-254-382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상으로 위상 입증

황종운 씨- 정보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강병구 씨- 라이브마스 부문 장려상 수상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지난 4일 주최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정읍 농업인들이 나란히 수상대를 밟았다. 데이터·콘텐츠·온라인 판매를 이우르는 정읍식 디지털농업 모델이 현장에서 실효를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 능력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열린다. 블로그 포스팅, UCC 제작,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라이브커머스 등 4개 분야로 진행해 생산부터 소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읍에서는 황종운 씨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방을 토대로 재배와 경영 혁신 사례를 발표해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병구 씨는 직접 재배한 정읍 대서마들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소개하고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라이브커머스 부문 장려상을 차지했다.

시는 그동안 스마트농업 교육과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농업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고, 온라인 유통·판매 채널을 넓히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현장 변화를 이끌었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정책이 농가의 실질적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 성과"라며 "정읍이 미래농업과 스마트농업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자리 잡도록 교육, 컨설팅, 판로 지원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935

중앙지사 010-9089-6874
인후지사 246-6856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6-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성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8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이웃에 수정과 100box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대표 김태엽)이 5일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190만원 상당의 수정과 10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역 내 흙물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며 경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산인삼영농조합법인 김태엽 대표는 4대째 이어온 인삼 재배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삼 가공품을 생산하며,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박람회 축제 등 적극 참여해 김제 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꾸준히 홍삼액과 인삼식혜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해 지역사회 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김 대표는 "정성을 담아 만든 수정과가 많은 분들의 일상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전통 인삼 농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다양한 기공품 개발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금동, 장애 여성 1인 가구에 가정용 CCTV 설치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매일 한 가구 이상 직접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산정 특례대상으로 신장에 심한 장애를 가진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 문제를 빌려고, 1인가구 주거 안전방문 지킴이 사업과 연계해 가정용 CCTV(도어가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는 '1일1가구 소통행정' 덕분에 외부인의 방문에 불안함을 느끼던 1인 여성 가구의 어려움이 조기에 발견, 즉시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 해당 가구는 방문객 확인과 상황 대응이 가능해지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소방서, 위도의용소방대 여름철 별집 제거 총력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웅)는 여름철 별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도 전담의용소방대가 '별집 제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원들 중에는 별집 제거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편성돼 있어 군민 피해 예방에 앞장서 위도 전담의용소방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별 쇠임 사고 예방하기 위해 △산행·야외활동 시 향수·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 자체 △흰색 계열 옷 착용 및 긴 옷으로 팔·다리 노출 최소화 △별집을 발견하면 머리를 보호하고 20m 이상 신속히 이탈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